

지민 석

Minseok Chi

홍티아트센터

24.10.16.(수)-10.30.(수)

Hongti Art Center

八景新硯

과
문자들

Landscape of Eight Views of Dadaepo

and Their Characters

다대팔경 多大八景과 문자들

나에게 예술은 우리가 사는 현실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도구이다.
관객은 나의 예술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놀이'를 경험하고, 그 놀이를
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현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행복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옛사람들이 주술사(무당, 샤먼)를 통해
신(만물에 내재하는)과 하나 되는 '굿판'에
참여하여 카타르시스를 느낀 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 행복한 삶을 사는 것과
같다. 나는 현대의 '주술사'로서 예술이라는
나만의 '주술'을 통해 사람들과 일상의
행복을 느끼고 싶다.